



열혈 아줌마들의 '도전 정신' 광주여성영화제 활짝 꽃피다

김지연 집행위원장
김채희 프로그래머



제5회 광주여성영화제를 준비하고 있는 김지연 집행위원장(왼쪽)과 김채희 프로그래머.

열혈 아줌마들의 무대포 정신이 만들어낸 영화제가 있다. 올해로 5회째 행사를 지르는 광주여성영화제다. 기본 룰도 몰랐고 시스템도 몰라 좌중우돌할 수밖에 없었다. 준비 과정을 영화로 찍으면 그것 또한 영화 한편은 될 듯하다.

올해 행사는 5~9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에서 열린다. 전남대 인근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준비에 한창인 영화제 집행위원장 김지연(42)씨와 프로그래머 김채희(41)씨를 지난 만났다.

'눈물 너머'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영화제에서는 10개국 장·단편 영화 30편을 상영한다. 지난 4회까지 항상 22편을 상영했던 데서 상영작도 대폭 늘었다.

영화제의 출발은 소박했다. 광주여성센터에서 활동하던 영상창작 집단 '틈'의 전업 주부 5명이 광주시청차 미디어센터에서 영상 제작 수업을 받게 시작이었다.

"영상 작업이라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아줌마들이 창작의 즐거움을 안 거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 깊은 이해가 '작품'으로 완성되니까 의미도 있었어요."

'틈' 회원으로 활동했던 프로그래머 김채희씨는 "무엇보다 성취감이 높았다"고 말했다.

회원들이 만든 작품은 영호남 시민영상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TV에도 방영되는 등 성과도 있었다. 자신들의 작품을 여러 사람과 함께 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은 이왕이면 다른 좋은 영화까지 함께 보자는 의견으로 발전했고, 소규모 영화제를 열자는 데까지 확장됐다.

"우리가 만든 영화를 함께 보자는 작은 '꿈'이 한없이 뻗어 나간 셈이에요. 저희들은 마니아층이 아닌 대중적 영화제를 꾸꾸고 있어요." (김지연)

첫해 예산은 2200만원. 이중 시로부터 300만원을 지원받았다. 상영관은 103석 규모의 광주영상복합문화관 G시네마를 확보했다. 올해 예산은 5000만원으로 시 지원금은 2700만원이다. 나머지는 발로 뛰며 후원금과 협찬으로 충당했다. 광주은행 여성 직원들의 모임인 개나리회 등은 영화제 관계자들이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든든한 후원자가 돼 주었다. 자원봉사자들의 활동도 눈에 띈다. 올해도 프로그래머를 포함해

광주여성센터 활동 '틈' 주부 5명 영상제작 수업 우리가 만든 영화 함께보자는 취지 '영화제' 열어 5~9일 10개국 30편 상영...작가에 창작지원금도 "친근하고 쉽게 올 수 있는 여성들의 축제 초대해요"

스텝 10여명과 자원활동가 40명이 함께 뛰고 있다. 국내 많은 영화제 중 광주여성영화제는 서울·인천·제주여성영화제 등과 함께 잘 되는 여성영화제로 꼽힌다. 여타 여성 영화제가 자치단체나 여성단체가 주최하는 데 반해 광주여성영화제는 민간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진행되는 게 특징이다. 객석 점유율은 90% 정도. 최근 20대 관객과 남성 관객들이 늘어나는 점도 고무적이다.

영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영화를 상영하느냐 하는 점이다. 광주여성영화제에서는 개봉작 중 좋았던 영화, 서울여성영화제 등 여러 영화제에서 발굴한 영화 등을 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의 시선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프로그램을 상영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래서 올해부터 규모는 작지만 지역 영화인들에게 창작 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영화를 무료로 관람하는 대신 봉투에 작은 정성을 담은 후불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올해부터 이 돈을 중점적으로 지역의 여성 감독이 새로운 시선으로 여성을 이야기하는 작품을 찍는 데 창작지원금으로 주거나 공

모를 진행하는 데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지연)
영화제측은 여성영화 해설가 양성 과정도 진행했다. 이후 소규모로 여성주의에 대한 영화를 관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해설이 있는 찾아가는 여성영화 상영회'를 열고 있다. 영화제측과 연락 후 일정을 잡으면 된다.
"큰 영화제는 영화제대로 저희처럼 작은 영화제는 또 그대로 뒀고 있다고 생각해요. 친근하고 쉽게 올 수 있는 여성들의 축제, 문턱이 낮은 영화제를 지향합니다." (김채희)

올해 영화제에서는 개막작인 '와즈다'를 비롯해 '프란시스 하', '한공주', '도화야', '천변의 굿나잇' 등 개봉 영화를 비롯해 '매이지가 알고 있었던 일', '토헤츠' 등 광주에서 처음 만나는 영화와 올해의 단편 특선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주부 관객들을 위해 놀이방을 운영하며 관객 카페, 감독과의 대화, 기념품 판매, 포토 월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가 마련돼 있다. 영화 관람은 무료로 카페(cafe.daum.net)를 통해 댓글로 예약하면 된다. 문의 062-515-6560.

/글·사진=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극단 갯돌 '파랑새'

무안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마당

전남문화예술재단 7~29일
마당극·음악회 등 다채

전남문화예술재단이 지원한 예술 단체들의 공연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전남문화예술재단은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무안습달문화예술관에서 '무안군민과 함께하는 어울마당'을 진행한다. 이번 '어울마당'은 전남문화예술재단이 남도 문화예술 창작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의 결과보고회이다.

오는 7일 개막식과 함께 극단 갯돌의 모듬북 공연, 마당극 '남도천지방'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무안군민과 함께하는 예술제'(오는 10~17일·무안예술회), '신연기부인'(15일·해남문화원 어르신연극반) 등의 공연이 펼쳐진다.
16일에는 문화다양성을 위한 무지개다

리지원사업 지원단체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주민 여성밴드 '미인'(화순 돈드깨비), 연극 '팔죽할멈과 호랑이'(해남어린이해피씨어터), '마닐라 최고의 신발 기술자'(극단 가람), 아시아희망오케스트라 'Hope in Asia'(순천필하모니오케스트라)를 만날 수 있다.

또 할머니와 20대가 함께하는 세대공감 연극 '나들이 내맘을 알아?'(23일·극단 새결), 무안지역 동학농민운동 관련 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작극과 뮤지컬 '파랑새'(28~29일·극단갯돌) 등 공연도 선보인다. 거주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담양 대담미술관 등 6개 단체의 결과보고회 '전남 레지던스 아트페어'가 열린다. 심포지엄도 개최된다. 7일에는 '레지던스 사업 타시·도 교류 및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과 24일 '전남의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결과보고 심포지엄'이 열린다. 문의 061-280-582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아빠를 빌려드립니다' 제작자 강연

5일 광주CGI센터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용관)은 5일 오후 5시 광주CGI센터 3층 시사에서 '제4회 찾아가는 문화콘텐츠 전문강연'을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는 오는 20일 개봉하는 영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의 제작사인 이스트스카이필름 김현철 대표가 초대됐다. 김 대표는 '미디어의 젊은 미래들과 대화'를 주제로 '앞서가는 기획', '트렌드를

읽고 파악하라', '나의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이야기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내 남자의 순이', '기생령', '굿바이 보이', '어린신부' 등 영화를 제작했다.

배우 김성경, 문정희, 채정안 등이 출연하는 '아빠를 빌려드립니다'는 광주CGI센터 스튜디오에서 일부를 촬영하고 광주 지역 기업인 WMC.ENT가 제작에 참여한 영화다. 강연에 앞서 VIP시사회도 함께 진행된다. 문의 062-610-2453.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나주문화재단연구소 6일 '고대 고분 국제학술회의'

국립나주문화재단연구소(소장 이상준)는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연구소 대강당에서 '고분을 통해 본 호남지역의 대외교류와 연대관'을 주제로 제1회 고대 고분 국제학술회의를 연다.

1부에서는 목포대 최성락 교수가 '삼국시대 서남해안 지역 고분문화의 전개양상'을 주제로 기조발표를 한다. 이어 '해남 만의총, 신안 배널리 고분의 대외교류상과

연대관'(이정호 동신대 교수) 등 발표가 진행된다.

2부에서는 초치다 준이치로 일본 큐슈대학교 교수의 '일본 북부구주 고분시대 중기의 매장시설과 동경', 리후이따 중국 절강성문물고고연구소 부원위원의 '삼국시대 한국 출토 중국 청자의 기종과 연대관' 등 발표가 이어진다. 문의 061-339-1122.
/김경민기자kki@kwangju.co.kr

이치 만나러 갑니다

남과 북의 화합을 모색하는 소통 버라이어티!

매주 일요일 밤 11시

18 [광주] 남구 서구 광산구 동구 북구 (CMB) [광주] 동구 북구(광주방송)	14 순천 여수 여천 광양 고흥 18 나주 화순 보성 담양 구례 곡성	16 목포 신안 무안 강진 원도 해남 영암 진도 장흥	13 스카이라이프 18 IPTV
---	---	--	--

꿈을 담은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